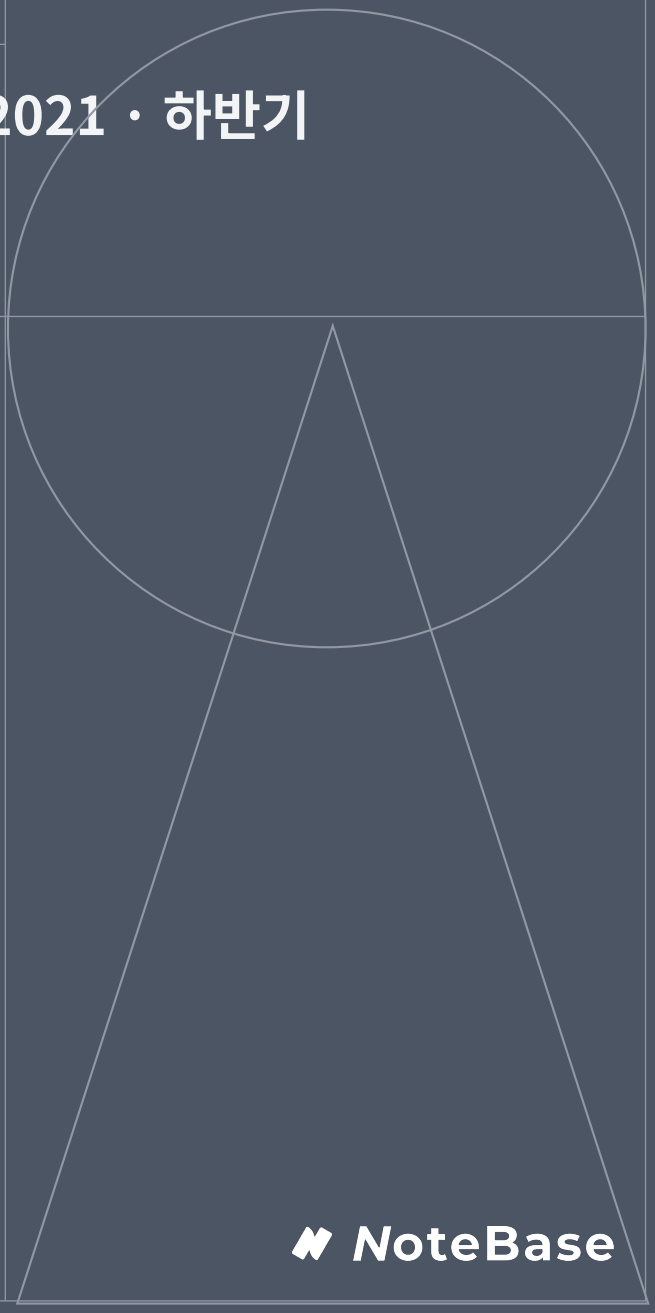
# 기출OX 해설집

공무원/해경/순경 · 국어 · 2021 · 하반기



NoteBase

#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해경/순경 · 국어 · 2021 · 하반기

### 공무원/해경/순경 · 국어 · 2021 · 하반기

**문 1. 다음은 한국어의 특질이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 한국어는 교착어로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가 발달되어 있다.
㉡ 한국어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발달되어 있다.
㉢ 한국어는 서술어가 문장 끝에 오는 어순이라 끝까지 들어야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 한국어는 음절 끝에 오는 자음도 음절의 첫소리와 같이 모두 제 음가대로 발음한다.
㉤ 한국어는 담화 중심의 언어로서 주어, 목적어 등이 흔히 생략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모두 맞음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한국어의 문법적·어휘적·통사적·음운적·담화적 특질을 구별하고, <보기>에서 옳은 진술의 개수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한국어는 조사와 어미가 발달한 교착어이며, 의성어·의태어가 풍부하고 서술어가 대체로 문장 끝에 놓인다. 또한 문맥에 의해 알 수 있는 주어와 목적어가 자주 생략된다. 다만 음절 끝의 자음은 모두 본래 음가로 발음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음으로 제한되어 발음된다.

<보기> 판단: ㉠ O, ㉡ O, ㉢ O, ㉣ X, ㉤ O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의 4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옳은 진술은 2개가 아니라 ㉠·㉡·㉢·㉤의 4개이다. 틀린 수량 '2개'는 '4개'로 고쳐야 한다.

② X
옳은 진술은 3개가 아니라 4개이다. ㉣만 틀렸으므로 '3개'는 '4개'로 고쳐야 한다.

③ O
㉠은 교착어의 특징, ㉡은 풍부한 의성어·의태어, ㉢은 서술어 중심의 문장 끝 어순, ㉤은 담화 맥락에 따른 문장 성분 생략을 바르게 설명한다. 따라서 옳은 진술은 4개이다.

④ X
'모두 맞음'은 ㉣ 때문에 틀리다. 한국어의 음절 끝 자음은 모두 제 음가대로 발음되지 않고, 받침에서는 ㄱ·ㄴ·ㄷ·ㄹ·ㅁ·ㅂ·ㅇ의 일곱 대표음으로만 발음된다. 따라서 '모두 맞음'은 '㉣을 제외한 4개가 맞음'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의 '모두 제 음가대로'가 함정이다. 음절 끝에서는 자음의 발음이 제한되므로 '모두'라는 표현이 성립하지 않는다. ㉣ 하나만 제외하면 나머지 네 진술은 모두 한국어의 일반적 특질에 해당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개수형 문항에서는 각 진술을 먼저 독립적으로 O/X 판정한 뒤 O의 개수를 센다. 한국어의 특질은 '조사·어미, 의성어·의태어, 서술어 끝, 성분 생략'은 맞는 특징으로 보고, 받침에서 모든 자음이 본래 소리대로 난다는 진술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한국어는 조사·어미가 발달하고 서술어가 뒤에 오며 성분 생략이 잦다. 받침 발음은 일곱 대표음으로 제한된다.

NoteBase

**문 2. 다음 <보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다음 세대에 자신의 모어(母語)를 전달하지 않고자 하는 행위를 '언어 자살(language suicide)'이라고 한다. 언어 자살은 명백한 외부의 강압이 없으며 비교적 단기간에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가령, 멕시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토토낙어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고 지역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는데도 이 지역 사람들은 모어 대신 스페인어를 사용했다. 이러한 언어 교체 현상을 멕시코 정부가 부추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구에 의하면 언어 자살은 '정체성 상실, 사회 붕괴, 세대 간 문화적 연속성의 결여' 등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원인이자 결과이자 배경이다. '나는 부모님들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겠어.'라는 집단적 자각이 한 세대로 하여금 단체로 모어 사용을 그만두게 할 수도 있는 셈이다.

①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지배 전략 가운데 언어 말살 정책은 언어 자살 현상의 대표적 사례이다.

② 모어를 계승하려는 언중의 의지가 언어 자살 현상의 발생 가능성에 변수가 될 수 없다.

③ 멕시코 정부의 공식적인 언어 정책이 특정 지역의 언어 교체 현상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다.

④ 부모 세대와 다르게 살겠다는 자식 세대의 집단적 자각은 언어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언어 자살의 성립 특징과 제시된 사례의 인과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언어 자살은 명백한 외부의 강압 없이 언중이 다음 세대에 모어를 전달하지 않기로 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집단적으로 모어 사용을 중단하는 현상이다. 핵심 구별 기준은 외부 권력의 강제에 의한 언어 말살이 아니라 언중의 집단적 선택이라는 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언어 말살 정책은 언어 자살 현상의 대표적 사례'라는 표현이 틀리다. 식민 지배 권력이 언어 사용을 금지하거나 억압하는 정책은 명백한 외부의 강압에 해당하므로, 제시문에서 정의한 언어 자살이 아니라 강제적인 언어 말살의 사례이다.

② X
'언중의 의지가 언어 자살 현상의 발생 가능성에 변수가 될 수 없다'라는 표현이 틀리다. 언어 자살은 언중이 모어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모어를 계승하려는 의지는 그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될 수 있다.

③ X
'멕시코 정부의 공식적인 언어 정책이 언어 교체를 유도했다'라는 표현이 틀리다. 멕시코 정부는 토토낙어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하지 않았고 지역 문화를 존중했으므로, 제시문은 정부가 언어 교체를 부추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④ O
제시문은 '부모님들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겠다'라는 집단적 자각이 한 세대 전체로 하여금 모어 사용을 그만두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부모 세대와 다르게 살겠다는 자식 세대의 집단적 자각은 언어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언어가 사라진다는 결과만 보고 외부 권력의 언어 말살 정책까지 언어 자살로 묶는 것이 함정이다. 또한 멕시코 사례에서는 정부의 금지 정책이 없었다는 사실과 지역 주민이 스페인어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언어 교체에 명백한 외부 강압이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외부 강압 없이 언중이 집단적으로 모어 전승을 중단했다면 언어 자살에 해당하고, 정부가 금지·억압했다면 강제적 언어 말살에 해당한다.

**암기 포인트**

언어 자살은 '외부 강압 없음, 집단적 선택, 모어 전승 중단'이다.

NoteBase

**문 3. 다음 <보기> 중 동일한 음운 현상이 나타나는 것끼리 묶인 예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굳이 ㉡ 끓더라 ㉢ 뒷일
㉣ 무릎 ㉤ 물난리 ㉥ 잡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각 단어의 실제 발음을 확인한 뒤 음운 변동을 교체·축약·첨가 중 어느 유형으로 분류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교체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음운의 수가 달라지지 않는 현상이다. 구개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유음화가 이에 해당한다.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이 되는 현상이다. 거센소리되기에서는 ㅎ과 예사소리가 합쳐져 거센소리가 된다.
첨가는 원래 없던 음운이 새로 덧나는 현상이다. 합성어나 파생어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ㄴ 첨가가 대표적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굳이'는 [구지]로 발음되어 ㄷ이 ㅈ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고, ㉣ '무릎'은 [무릅]으로 발음되어 받침 ㅍ이 ㅂ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다. 둘 다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이다.

② O
㉡ '끓더라'는 [끌터라]로 발음되어 ㅎ과 ㄷ이 ㅌ으로 합쳐지고, ㉤ '잡히다'는 [자피다]로 발음되어 ㅂ과 ㅎ이 ㅍ으로 합쳐진다. 둘 다 두 음운이 하나의 거센소리로 되는 축약이다.

③ X
㉢ '뒷일'은 [뒨닐]로 발음될 때 ㄴ이 덧나는 첨가가 나타나지만, ㉥ '물난리'는 [물랄리]로 발음되어 ㄴ이 ㄹ로 바뀌는 유음화, 즉 교체가 나타난다. 틀린 부분은 두 단어를 동일한 음운 변동으로 묶은 것이며, 올바르게는 '뒷일'은 첨가, '물난리'는 교체이다.

④ O
㉣ '무릎'의 [무릅]에서는 ㅍ이 ㅂ으로 바뀌고, ㉥ '물난리'의 [물랄리]에서는 ㄴ이 ㄹ로 바뀐다. 둘 다 음운의 수는 그대로이고 음운만 바뀌는 교체이다.

**오답 포인트**

'동일한 음운 현상'을 세부 현상의 이름까지 같아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다. ①의 구개음화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 ④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유음화는 세부 명칭은 다르지만 모두 교체에 속한다. 반면 ③은 첨가와 교체를 함께 묶었으므로 옳지 않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표준 발음을 적고, 원래 음운과 발음된 음운의 수를 비교한다. 수가 같고 음운만 바뀌면 교체, 두 음운이 하나가 되면 축약, 없던 음운이 늘어나면 첨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굳이·무릎·물난리는 교체, 끓더라·잡히다는 축약, 뒷일은 첨가이다.

NoteBase

**문 4. 다음 <보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ᄃᆡᄃᆞᆯ에 동난지이 사오 져 장스야 네 황후 긔 무서시라 웨ᄂᆞᆫ다 사쟈
외골내육(外骨內肉) 양목(兩目)이 상천(上天) 전행(前行) 후행(後行) 소(小)아리 팔족(八足) 대(大)아리 이족(二足) 청장(淸醬)
ᄋᆞ스슥ᄒᆞᄂᆞᆫ 동난지이 사오
쟝스야 하 거복이 웨지 말고 게젓이라 ᄒᆞ렴은

①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② 추상적 사물을 구체적 사물로 표현하고 있다.
③ 대상의 외양과 움직임에 대한 묘사가 있다.
④ 지적하려고 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게젓 장수의 말을 중심으로 음성 상징어, 구체적 묘사, 직접적 비판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음성 상징어는 소리나 모양을 감각적으로 나타내는 말이고, 구체적 묘사는 대상의 생김새와 움직임을 눈앞에 보이듯 드러내는 표현이다. 추상적 사물의 구체화는 관념이나 감정처럼 형태가 없는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인데, 이 작품은 구체적 대상인 게와 게젓을 묘사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으스슥'은 게젓을 씹을 때 나는 소리와 느낌을 나타낸 음성 상징어로, 장면에 생동감을 준다.
② X. 틀린 표현은 '추상적 사물을 구체적 사물로 표현'이다. 작품은 추상적 관념을 사물로 바꾼 것이 아니라, 게라는 구체적 대상을 '외골내육', '양목이 상천', '소아리 팔족, 대아리 이족'처럼 외양과 신체 특징으로 풀어 묘사한다. 올바르게는 '구체적 사물인 게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이다.
③ O. '외골내육', '양목이 상천', '소아리 팔족, 대아리 이족'은 게의 외양을, '전행 후행'은 게의 움직임을 묘사한다.
④ O. 종장의 '거북이 웨지 말고 게젓이라 하렴은'은 쉬운 우리말 대신 어려운 한자어를 늘어놓는 장수의 현학적 태도를 직접 지적한다.

### 오답 포인트

한자어를 동원해 게를 낯설고 복잡하게 설명했다는 점 때문에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했다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표현 방식이 어려울 뿐 묘사의 대상 자체는 처음부터 구체적인 사물인 게와 게젓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묘사의 대상이 관념·감정 같은 추상물인지, 실제 사물인지 확인한다. 이어 소리를 나타내는 말, 외양·동작을 보여 주는 구절, 비판을 직접 드러내는 종결 표현을 각각 대응시키면 된다.

### 암기 포인트

'으스슥'은 음성 상징, 한자어 나열은 게의 구체적 묘사, '게젓이라 하렴은'은 현학적 태도에 대한 직접 비판이다.

NoteBase

**문 5. 다음 <보기>의 보고서 목차 중 내용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제목 : 세계화 시대의 한국어 발전 방안
Ⅰ. 세계화의 개념 및 사업의 배경
1. 세계화의 정의 및 유관 개념
2. 시대별 한국어 문자 변천사 ------ ㉠
3. 한국어 세계화 사업의 필요성 ---- ㉡
Ⅱ. 한국어 세계화 사업의 실태
1. 정부 기관에 의한 세계화 사업
2. 민간 기관에 의한 세계화 사업 ---- ㉢
Ⅲ. 기존 사례들의 문제점 검토
1. 예산의 부족과 전문가 확보의 미비
2. 한류 중심의 편향적 사업 계획
3. 장기적 전망이 결여된 사업 진행 -- ㉣
Ⅳ.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개선 방안
..(이하생략)..

① ㉠
② ㉡
③ ㉢
④ ㉣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보고서 목차에서 제목과 각 항목이 주제에 맞게 연결되는지,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이 내용상 포괄·종속 관계를 이루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보고서의 목차는 제목이 제시한 중심 주제를 일관되게 다루어야 하며, 하위 항목은 바로 위 상위 항목의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한국어 세계화 사업의 배경, 실태, 문제점, 개선 방안을 순서대로 다루고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의 '시대별 한국어 문자 변천사'는 한국어 문자의 역사적 변화를 다루는 내용이므로 '세계화의 개념 및 사업의 배경'을 직접 구체화하지 못한다. 올바르게는 세계화의 전개 배경이나 한국어 세계화 사업이 추진된 시대적 배경에 관한 항목이 들어가야 한다.
② O — ㉡의 '한국어 세계화 사업의 필요성'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므로 '세계화의 개념 및 사업의 배경'에 알맞다.
③ O — ㉢의 '민간 기관에 의한 세계화 사업'은 실제 사업의 추진 주체와 현황을 다루므로 '한국어 세계화 사업의 실태'에 알맞다.
④ O — ㉣의 '장기적 전망이 결여된 사업 진행'은 기존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이므로 '기존 사례들의 문제점 검토'에 알맞다.

**오답 포인트**

㉠의 '시대별'이라는 말만 보고 사업의 시대적 배경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문자 변천사'는 문자 자체의 역사이고, 보고서의 중심인 한국어 세계화 사업의 배경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보고서 제목의 핵심어를 확인한 뒤, 각 하위 항목이 상위 항목을 직접 구체화하는지 점검한다. 같은 분야의 내용처럼 보여도 중심 주제와의 관련성이 약하거나 상위 항목의 범위를 벗어나면 부적절한 목차이다.

**암기 포인트**

목차 판단의 핵심은 '제목과의 일관성'과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의 포괄·종속 관계'이다.

NoteBase

**문 6. 다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던
그 무수한 길도
실은 네게로 향한 것이었다

까마득한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에도
내 응시에 날아간 별은
네 머리 위에서 반짝였을 것이고
내 한숨과 입김에 꽃들은
네게로 몸을 기울여 흔들렸을 것이다

사랑에서 치욕으로,
다시 치욕에서 사랑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네게로 드리웠던 두레박

그러나 매양 퍼 올린 것은
수만 갈래의 길이었을 따름이다
은하수의 한 별이 또 하나의 별을 찾아가는
그 수만의 길을 나는 걷고 있는 것이다

나의 생애는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네게로 난 단 하나의 에움길이었다

- 푸른 밤, 나희덕 -

① 화자는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② 사랑하는 임과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시상을 촉발하고 있다.

③ 화자는 수많은 사랑과 치욕을 경험했다.

④ 길 위에서 헤매는 '나'의 모습은 '나'의 심적 방황을 형상화한 것이다.

**정답 1번**

NoteBase

###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적 화자의 상황과 정서, 그리고 '길'과 '두레박'의 비유적 의미를 작품의 구절에 근거하여 파악하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화자는 '너'를 피하려 했던 모든 길조차 결국 '너'에게 향한 것이었음을 깨닫는다. '수만 갈래의 길'과 '에움길'은 '너'에게 이르지 못한 채 이어지는 삶의 방황과 우회이며, '두레박'은 사랑과 치욕 사이를 거듭 오간 화자의 마음을 형상화한다.

### 선지별 해설

① X — 작품에는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 화자가 고통스러워한다는 내용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이다. 올바르게는 화자가 '너'를 피하려 했던 길도 결국 '너'에게 향했음을 깨닫고, 자신의 생애를 '너'에게 이르는 하나의 에움길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야 한다.
② O — 화자는 '까마득한 밤길'을 혼자 걷고, '너'에게 두레박을 드리워도 '수만 갈래의 길'만 퍼 올린다. '너'와 함께하지 못하는 거리와 부재가 시적 사유를 촉발한다.
③ O — '사랑에서 치욕으로, 다시 치욕에서 사랑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는 구절은 화자가 사랑과 치욕의 감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했음을 보여 준다.
④ O — '수만 갈래의 길'을 걷고 모든 지름길을 돌아 '에움길'에 이르는 화자의 모습은 '너'를 향하면서도 곧장 다가가지 못하는 내면의 방황을 공간적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이다.

### 오답 포인트

①의 '미친 듯', '수만 갈래의 길'을 곧바로 정신적 혼란과 고통으로 단정하는 것이 함정이다. 이 표현들은 '너'를 피하려 했으나 결국 '너'를 향하고 있었던 역설적 삶의 궤적과 방황을 드러내며,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 괴롭다는 진술의 직접 근거는 아니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화자의 정서나 상황을 판단할 때에는 선지의 핵심 표현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작품에 실제로 있는지 확인한다. 특히 '고통스럽다'처럼 강한 정서 판단은 단순한 행동 묘사만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고, 직접적인 시어와 시상의 흐름을 함께 살핀다.

### 암기 포인트

'길·에움길'은 '너'를 향한 우회와 방황, '두레박'은 사랑과 치욕 사이를 오가는 마음이다.

NoteBase

**문 7.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표기된 낱말들로 이루어진 것은?**

① 몹시, 색시, 법석, 깍두기, 싹뚝, 갑자기

② 깨끗이, 일일이, 간간히, 틈틈히, 소홀히

③ 선짓국, 자릿세, 전셋집, 장맛비, 베갯잇

④ 다정타, 어떻튼, 익숙지, 섭섭지, 생각건대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부사의 끝음절 '-이/-히', 사이시옷, 준말, 소리와 표기의 관계를 한글 맞춤법에 맞게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부사의 끝음절은 발음과 규정에 따라 '-이'와 '-히'를 구별하며, '간간이·틈틈이'는 '-이', '소홀히'는 '-히'로 적는다. 합성어에서 뒷말의 된소리나 덧나는 소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짓국·자릿세·전셋집·장맛비·베갯잇'처럼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하다'가 줄 때에는 앞말의 받침에 따라 '하'가 줄거나 'ㅎ'이 뒤 자음과 합쳐질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싹뚝'이 잘못되었다. 올바른 표기는 '싹둑'이다. 나머지 '몹시, 색시, 법석, 깍두기, 갑자기'는 맞는 표기이다.

② X — '간간히'와 '틈틈히'가 잘못되었다. 올바르게는 각각 '간간이'와 '틈틈이'이다. '깨끗이, 일일이, 소홀히'는 맞는 표기이다.

③ O — '선짓국, 자릿세, 전셋집, 장맛비, 베갯잇'은 모두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맞는 표기이다.

④ X — '어떻튼'이 잘못되었다. '어떻다'에 선택이나 무관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 '-든'이 붙으므로 '어떻든'으로 적는다. '다정타, 익숙지, 섭섭지, 생각건대'는 '-하다'가 준 형태로 맞는 표기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소홀히'의 '-히'에 끌려 '간간히·틈틈히'도 맞다고 보기 쉽고, ④는 발음이 거세게 들리는 데 끌려 '어떻튼'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간간이·틈틈이'와 '어떻든'이 맞는 표기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에서 헷갈리는 낱말만 따로 뽑아 '-이/-히', 사이시옷, 준말, 어미의 네 기준으로 확인한다. 한 낱말이라도 틀리면 그 선지 전체가 오답이므로, 열거된 모든 낱말을 끝까지 점검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간간이·틈틈이, 싹둑, 어떻든을 묶어 기억하고, 선짓국·자릿세·전셋집·장맛비·베갯잇에는 사이시옷을 적는다.

NoteBase

**문 8. 다음의 법률용어를 순화한 것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繫屬: 심판 중일 때

② 決潰: 일을 맡아서 처리함

③ 懈怠: 기일 내에 하지 않다, 게을리 하다

④ 欠缺: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어려운 한자 법률용어의 정확한 뜻을 쉬운 우리말 풀이와 대응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계속(繫屬)은 사건이 법원이나 심판기관에 걸려 처리 중인 상태이고, 결궤(決潰)는 방죽이나 둑이 무너지거나 이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해태(懈怠)는 정해진 일을 제때 하지 않고 게을리하는 것이며, 흠결(欠缺)은 필요한 요건이나 요소가 빠져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繫屬(계속)은 사건이 법원이나 심판기관에서 심리·심판 중인 상태이므로 '심판 중일 때'라는 풀이가 맞다.
② X — 決潰(결궤)를 '일을 맡아서 처리함'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決潰는 '방죽이나 둑이 무너짐 또는 이를 무너뜨림'이라는 뜻이고, '일을 맡아서 처리함'에 해당하는 한자어는 掌理(장리)이다.
③ O — 懈怠(해태)는 정해진 기일까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게을리하는 것을 뜻하므로 제시된 풀이가 맞다.
④ O — 欠缺(흠결)은 필요한 요건이나 요소가 빠져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뜻하므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라는 취지의 풀이가 맞다.

**오답 포인트**

②의 쉬운 풀이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대응하는 한자어가 바뀌었다. '일을 맡아서 처리함'은 掌理이고, 決潰는 둑이 무너지는 일을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의 뜻을 구성 요소와 연결해 판단한다. 決은 터지거나 갈라지는 결과, 潰는 무너짐과 관련되므로 決潰를 업무 처리의 뜻으로 볼 수 없다.

**암기 포인트**

繫屬은 심판 중, 決潰는 둑 무너짐, 懈怠는 게을리함, 欠缺은 요건 빠짐이다.

NoteBase

**문 9. 다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어린이들은 원래 북아메리카에는 100만 명가량의 인디언밖에 없었다고 배웠다. 이렇게 적은 수라면 거의 빈 대륙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백인들의 정복을 정당화하는 데 유용했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발굴과 미국의 해안 지방을 처음 밟은 유럽인 탐험가들의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인디언들이 처음에는 약 2000만 명에 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세계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콜럼버스가 도착한 이후 한두 세기에 걸쳐 인디언의 인구는 최대 95%가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디언들이 죽은 주된 요인은 구세계의 병원균이었다. 인디언들은 그런 질병에 노출된 적이 없었으므로 면역성이나 유전적인 저항력이 전혀 없었다. 살인적인 질병의 1위 자리를 놓고 다투었던 것은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발진티푸스 등이었고,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듯 디프테리아, 말라리아, 볼거리, 백일해, 페스트, 결핵, 황열병 등이 그 뒤를 바싹 따랐다. 병원균이 보인 파괴력을 백인들이 직접 목격한 경우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1837년 대평원에서 가장 정교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만단족 인디언들은 세인트루이스에서 미주리 강을 타고 거슬러 올라온 한 척의 증기선 때문에 천연두에 걸렸다. 만단족의 한 마을은 몇 주 사이에 인구 2000명에서 40명으로 곤두박질쳤다.
-재레드 다이아몬드, '총·균·쇠' 중에서-

① 인디언들은 구세계의 병원균에 대한 면역성이 일부 있었다.
② 만단족 인디언들의 인구 감소는 백인들의 무기 때문이었다.
③ 콜럼버스 이전의 북아메리카에는 100만 명가량의 인디언이 있었다.
④ 만단족 인디언들의 한 마을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천연두 때문이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제시문에 나타난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원래 인구,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 만단족 사례의 직접 원인을 정확히 대응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제시문은 과거에 북아메리카 인디언이 약 100만 명뿐이었다고 가르쳤던 통념을 제시한 뒤, 고고학적 발굴과 유럽인 탐험가의 기록을 근거로 실제 초기 인구가 약 2000만 명이었다고 바로잡는다. 또한 인디언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을 구세계의 병원균으로 설명하며, 만단족의 급격한 인구 감소를 천연두의 사례로 제시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면역성이 일부 있었다'이다. 제시문에 따르면 인디언들은 구세계의 질병에 노출된 적이 없어 면역성이나 유전적 저항력이 전혀 없었다.
② X — 틀린 표현은 '백인들의 무기 때문이었다'이다. 제시문은 만단족이 증기선을 통해 전해진 천연두에 걸려 인구가 급감했다고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만단족의 인구 감소는 구세계에서 유입된 병원균인 천연두 때문이었다.
③ X — 틀린 표현은 '콜럼버스 이전의 북아메리카에는 100만 명가량의 인디언이 있었다'이다. 100만 명은 과거 미국 어린이들이 배웠던 통념이고, 발굴과 탐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처음에는 약 2000만 명에 달했던 것으로 제시된다.
④ O — 만단족의 한 마을은 천연두에 걸린 뒤 몇 주 사이에 인구가 2000명에서 40명으로 급감했다는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 오답 포인트

③의 '100만 명'은 글쓴이가 인정한 사실이 아니라 '과거에 배웠던 통념'이다. '그러나' 뒤에 제시된 약 2000만 명이 검토 결과 확인된 수치이다. 또한 증기선은 병원균의 전달 경로이고, 만단족 인구 감소의 직접 원인은 무기가 아니라 천연두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시문 일치 문제에서는 '과거의 주장'과 '글쓴이가 근거를 들어 확정한 내용'을 대조어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원인 관계는 전달 수단인 증기선과 직접 원인인 천연두를 나누어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100만 명은 과거 통념, 약 2000만 명은 검토 결과이며, 만단족의 급감 원인은 천연두이다.

NoteBase

**문 10. 다음 <보기>의 한자어가 가리키는 나이의 합은?**

<보기>
· 장가(杖家)
· 상년(桑年)
· 이모(二毛)
· 망백(望百)
· 상수(上壽)

① 281세
② 301세
③ 321세
④ 341세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전통적인 나이 명칭이 각각 몇 살을 뜻하는지 알고 그 값을 정확히 합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장가(杖家)는 50세, 상년(桑年)은 48세, 이모(二毛)는 32세, 망백(望百)은 91세, 상수(上壽)는 100세를 가리킨다. 구해야 할 값은 이 다섯 나이의 합이다.

**사용할 계산**

각 한자어가 가리키는 나이를 수로 바꾼 뒤 모두 더한다. 서로 다른 나이 명칭의 총합을 묻고 있으므로 덧셈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장가 50세 + 상년 48세 + 이모 32세 + 망백 91세 + 상수 100세 = 321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281세는 다섯 나이를 모두 정확히 바꿔 더한 값이 아니다. 올바른 합은 321세이다.
② X — 301세는 장가(杖家)를 50세가 아니라 30세로 잘못 보면 나오는 값이다. 장가는 장가드는 나이가 아니라 집에서 지팡이를 짚는 나이인 50세이므로 올바른 합은 321세이다.
③ O — 50 + 48 + 32 + 91 + 100 = 321이므로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④ X — 341세는 상수(上壽)를 120세로 잡으면 나오는 값이다. 이 문항에서 상수는 100세이므로 올바른 합은 321세이다.

**오답 포인트**

‘장가’를 혼인과 연결해 30세로 착각하면 ②를 고르게 된다. 또한 상수를 120세로 보는 다른 용례를 적용하면 ④가 나오지만, 이 문항의 전통 나이 명칭에서는 상수를 100세로 보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나이 한자어를 각각 숫자로 대응시킨 뒤 하나씩 합산하고, 특히 장가·망백처럼 글자의 일상적 의미만으로 나이를 추측하기 어려운 표현을 먼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장가 50, 상년 48, 이모 32, 망백 91, 상수 100으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11. 다음 <보기> 중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는 단어는 모두 몇 개인가?**

<보기>
㉠ 로봇(robot) ㉡ 배지(badge)
㉢ 타깃(target) ㉣ 앰풀(ampoule)
㉤ 리조또(risotto) ㉥ 캐시밀론(Cashmilon)
㉦ 바베큐(barbecue) ㉧ 심포지움(symposium)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외래어의 관용적 발음이나 흔히 쓰는 표기가 아니라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표준 표기를 판별하고, 잘못 표기된 말의 개수를 세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 로봇(robot), ㉡ 배지(badge), ㉢ 타깃(target), ㉣ 앰풀(ampoule), ㉥ 캐시밀론(Cashmilon)은 맞는 표기이다.
㉤ '리조또(risotto)'의 표준 표기는 '리소토', ㉦ '바베큐(barbecue)'의 표준 표기는 '바비큐', ㉧ '심포지움(symposium)'의 표준 표기는 '심포지엄'이다. 따라서 맞지 않는 단어는 ㉤, ㉦, ㉧의 3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1개'이다. '리조또', '바베큐', '심포지움'이 모두 잘못된 표기이므로 올바르게는 '3개'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2개'이다. '리조또→리소토', '바베큐→바비큐', '심포지움→심포지엄'의 세 단어를 고쳐야 하므로 올바르게는 '3개'이다.
③ O —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는 단어는 ㉤, ㉦, ㉧의 3개이므로 맞는 선지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4개'이다. ㉠, ㉡, ㉢, ㉣, ㉥은 맞는 표기이고 잘못된 것은 ㉤, ㉦, ㉧뿐이므로 올바르게는 '3개'이다.

**오답 포인트**

'리조또', '바베큐', '심포지움'은 일상에서 자주 보이는 표기라서 표준 표기로 착각하기 쉽다. 익숙한 사용 빈도와 표준 표기는 다르며, 각각 '리소토', '바비큐', '심포지엄'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시된 외래어를 하나씩 표준 표기와 대조하여 잘못된 항목에 표시한 뒤 마지막에 개수를 센다. 특히 된소리를 적은 표기와 '-큐', '-지엄' 부분을 우선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리소토·바비큐·심포지엄이 표준 표기이며, 틀린 것은 3개이다.

NoteBase

**문 12. 다음 <보기> 중 ㉠~㉢에 들어갈 한자 성어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부모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
·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속담은 (㉡)와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 아무리 (㉢)한 인물이라도 좋은 동료를 만나지 못하면 성공하기 힘들다.

① ㉠: 反捕之孝, ㉡: 間於齊楚, ㉢: 開世之才
② ㉠: 反哺之孝, ㉡: 看於齊楚, ㉢: 開世之才
③ ㉠: 反哺之孝, ㉡: 間於齊楚, ㉢: 蓋世之才
④ ㉠: 反捕之孝, ㉡: 看於齊楚, ㉢: 蓋世之才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맞는 한자 성어의 정확한 표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反哺之孝(반포지효)는 자식이 자란 뒤 부모를 봉양하는 효성을 뜻한다. 間於齊楚(간어제초)는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끼었다는 데서, 강한 세력 사이에서 곤란한 처지에 놓임을 뜻한다. 蓋世之才(개세지재)는 세상을 뒤덮을 만큼 뛰어난 재주나 그런 인물을 뜻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間於齊楚만 옳다. ㉠의 反捕之孝에서 捕(잡을 포)는 틀리고, 부모에게 먹이를 되돌려 준다는 뜻의 哺(먹일 포)를 써서 反哺之孝라고 해야 한다. ㉢의 開世之才에서 開(열 개)는 틀리고, 세상을 뒤덮는다는 뜻의 蓋(덮을 개)를 써서 蓋世之才라고 해야 한다.

② X
㉠ 反哺之孝만 옳다. ㉡의 看於齊楚에서 看(볼 간)은 틀리고, 두 나라 사이에 끼었다는 뜻의 間(사이 간)을 써서 間於齊楚라고 해야 한다. ㉢의 開世之才는 蓋世之才로 고쳐야 한다.

③ O
反哺之孝, 間於齊楚, 蓋世之才가 각각 부모 봉양, 강자 사이의 곤란한 처지, 매우 뛰어난 재주라는 문맥에 모두 맞고 한자 표기도 정확하다.

④ X
㉢ 蓋世之才만 옳다. ㉠의 反捕之孝는 反哺之孝로, ㉡의 看於齊楚는 間於齊楚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捕와 哺는 음이 같고, 看과 間 및 開와 蓋는 독음이 같거나 비슷해 문맥만 대충 보면 잘못된 한자를 놓치기 쉽다. 특히 반포지효의 핵심은 부모를 '잡는' 捕가 아니라 부모에게 '먹이는' 哺이고, 개세지재의 핵심은 세상을 '여는' 開가 아니라 세상을 '뒤덮는' 蓋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성어의 음만 보지 않고 각 한자의 뜻을 문맥에 대입한다. 부모 봉양은 哺, 두 세력 사이는 間, 세상을 뒤덮는 뛰어난 재주는 蓋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반포는 먹일 哺, 간어제초는 사이 間, 개세지재는 덮을 蓋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보기>의 밑줄 친 단어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보기>
돛이 오르자 썰물에 갈바람을 맞으며 배는 조용히 미끄러져 나갔다.

① 명지바람
② 살바람
③ 높새바람
④ 하늬바람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고유어 바람 이름이 가리키는 바람의 방향과 성질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문맥의 '갈바람'은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뜻한다.

**핵심 개념**

갈바람과 하늬바람은 모두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곧 서풍을 이르는 말이다. 명지바람은 보드랍고 화창한 바람, 살바람은 좁은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찬 바람, 높새바람은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명지바람'은 갈바람과 같은 서풍이 아니라 보드랍고 화창한 바람이다. 틀린 표현 '명지바람'은 '보드랍고 화창한 바람'으로 바로잡는다.
② X — '살바람'은 서풍이 아니라 좁은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찬 바람이다. 틀린 표현 '살바람'은 '좁은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찬 바람'으로 바로잡는다.
③ X — '높새바람'은 서풍이 아니라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곧 북동풍이다. 틀린 표현 '높새바람'은 '북동풍'으로 바로잡는다.
④ O — '하늬바람'은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뜻하므로 '갈바람'과 의미가 가장 가깝다.

**오답 포인트**

'갈바람'의 '갈'을 가을과 연결해 바람의 느낌이나 계절을 묻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갈바람과 하늬바람이 모두 서풍을 가리킨다는 방향 대응이 핵심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유어 바람 이름 문제에서는 먼저 방향을 뜻하는 말인지 바람의 성질을 뜻하는 말인지 나눈다.
갈바람·하늬바람은 서풍, 높새바람은 북동풍으로 대응시키고, 명지바람·살바람은 각각 온화한 성질과 찬 성질을 나타내는 말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갈바람＝하늬바람＝서풍, 높새바람＝북동풍이다.

NoteBase

**문 14. 다음 중 띄어쓰기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젊은∨나이에∨남편을∨잃다니∨참∨안됐다.
② 올해는∨비가∨너무∨많이∨와서∨과일∨농사가∨안돼∨큰일이다.
③ 자식이∨안되기를∨바라는∨부모는∨없다.
④ 그렇게∨독선적으로∨일을∨처리하면∨안돼.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하나의 단어인 '안되다'와 부정 부사 '안' 뒤에 동사 '되다'가 이어진 '안 되다'의 띄어쓰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안되다'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훌륭하게 되지 못하다', '가엾거나 딱하다' 등의 뜻을 가진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반면 '안 되다'가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의 뜻이면 '안'과 '되다'를 띄어 쓴다. '돼'는 '되어'의 준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참 안됐다'의 '안되다'는 남편을 잃은 처지가 가엾고 딱하다는 뜻의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② O — '농사가 안돼'의 '안되다'는 농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의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안돼'는 '안되어'가 준 형태이다.
③ O — '자식이 안되기를'의 '안되다'는 자식이 훌륭하게 되지 못한다는 뜻의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④ X — '하면 안돼'는 독선적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의 뜻이다. 틀린 표현은 '안돼'이며, 올바르게는 '그렇게 독선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 돼.'라고 띄어 쓴다.

**오답 포인트**

모든 선지에 발음이 같은 '안돼/안되다'가 쓰여 있어 형태만 보면 구별하기 어렵다. 특히 ②의 '농사가 안돼'는 단순 부정처럼 보이지만 '농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한 단어 '안되다'이고, ④만 금지 표현 '안 되다'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엾다', '잘 이루어지지 않다', '훌륭하게 되지 못하다'로 뜻이 통하면 '안되다'로 붙여 쓴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의 뜻으로 바꿀 수 있으면 '안 되다'로 띄어 쓴다.

**암기 포인트**

딱함·불성취·미성숙은 '안되다', 금지는 '안 되다'이다.

NoteBase

**문 15. 다음 <보기>의 문장들을 미괄식 문단으로 구성하고자 할 때 문맥상 전개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숨 쉬고 마시는 공기와 물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된 경우가 많고, 자원의 고갈, 생태계의 파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 현대인들은 과학 기술이 제공하는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리함의 혜택 속에서 인류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 자연 환경의 파괴뿐만 아니라 다양한 갈등으로 인한 전쟁의 발발 가능성은 도처에서 높아지고 있어서, 핵전쟁이라도 터진다면 인류의 생존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 이런 위기들이 현대 과학 기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과학 기술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전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 오늘날 주변을 돌아보면 낙관적인 미래 전망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는 심각한 현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문장 사이의 지시어와 내용의 포괄·상세 관계를 파악하여 미괄식 문단의 전개 순서를 정하는 문제이다. 미괄식 문단은 구체적인 근거와 사례를 앞에 제시하고 중심 생각이나 결론을 마지막에 놓는다.

**올바른 순서**

㉡ - ㉤ - ㉠ - ㉢ - ㉣
1. ㉡: 과학 기술의 혜택 때문에 인류의 미래를 낙관하는 현대인의 인식을 제시한다.
2. ㉤: '낙관적인 미래 전망'을 이어 받아, 그 전망이 가볍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심각한 현상들이 있음을 예고한다.
3. ㉠: 공기와 물의 오염, 자원 고갈, 생태계 파괴라는 심각한 현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4. ㉢: '자연 환경의 파괴뿐만 아니라'라는 표현으로 ㉠을 받아 전쟁과 핵전쟁의 위험까지 논의를 확대한다.
5. ㉣: 앞서 열거한 문제를 '이런 위기들'로 묶고, 과학 기술에 대한 지나친 낙관이 위험하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왜 이 순서인가: ㉤은 ㉡의 낙관적 전망을 반박할 사례를 예고하고, ㉠과 ㉢은 그 사례를 제시하며, ㉣은 '이런 위기들'로 앞 내용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기 때문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 ㉠ 뒤에는 '자연 환경의 파괴뿐만 아니라'로 내용을 확대하는 ㉢이 와야 하는데, 이 선지는 ㉤을 뒤늦게 배치하여 예고와 사례의 순서를 뒤집었다. 틀린 부분은 '㉡ - ㉠ - ㉢ - ㉤'의 배열이며, 올바르게는 ㉡ - ㉤ - ㉠ - ㉢ - ㉣이다.
② O — ㉡의 낙관적 전망을 ㉤이 받아 반전하고, ㉠과 ㉢이 위기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 뒤, ㉣이 '이런 위기들'을 종합하여 미괄식 결론을 맺는다.
③ X — ㉤의 '낙관적인 미래 전망'은 앞에서 그 전망을 제시한 ㉡을 전제로 하므로 ㉤을 첫 문장에 둘 수 없다. 또한 결론인 ㉣ 뒤에 구체적 사례인 ㉢을 두는 것도 미괄식 전개에 맞지 않는다. 틀린 부분은 '㉤ - ㉠ - ㉡ - ㉣ - ㉢'의 배열이며, 올바르게는 ㉡ - ㉤ - ㉠ - ㉢ - ㉣이다.
④ X — ㉤은 앞선 ㉡의 낙관적 전망을 받아야 하므로 ㉡보다 먼저 올 수 없고, ㉣의 '이런 위기들'은 ㉠과 ㉢에서 제시한 위기를 모두 받은 뒤에 나와야 한다. 틀린 부분은 '㉤ - ㉡ - ㉢ - ㉣ - ㉠'의 배열이며, 올바르게는 ㉡ - ㉤ - ㉠ - ㉢ - ㉣이다.

### 오답 포인트

㉠과 ㉢의 환경 위기 사례만 자연스럽게 이어 붙이고 ㉤을 뒤에 놓기 쉽다. 그러나 ㉤은 '심각한 현상들'을 먼저 예고하고, ㉠과 ㉢은 그 현상을 구체화한다. 또한 ㉣의 '이런 위기들'은 앞의 사례 전체를 지시하므로 반드시 마지막 결론에 놓인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 배열 문제에서는 먼저 지시어가 가리키는 앞 문장을 찾고, '예고 → 구체적 사례 → 종합 결론'의 관계를 확인한다. 미괄식 문단이면 중심 판단을 담은 결론 문장을 마지막에 배치한다.

### 암기 포인트

낙관 제시(㉡) → 반전·사례 예고(㉤) → 환경 위기(㉠) → 전쟁 위기로 확대(㉢) → 낙관의 위험성 결론(㉣)이다.

NoteBase

## 문 16. 다음 시조 중 창작 계층이 가장 다른 것은?

① 청산(靑山)은 내 뜻이오 녹수(綠水)는 님의 정(情)이,
녹수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變)홀손가.
녹수도 청산을 못 니져 우러 예어 가는고.

②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뫼흘 ᄇᆞ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옴이 이리ᄒᆞ랴.
말숨도 우움도 아녀도 몯내 됴햐ᄒᆞ노라.

③ 한송정(寒松亭) 달 밝은 밤의 경포대(鏡浦臺)에
물결 잔 제
유신(有信)한 백구(白鷗)는 오락가락 하건마는
어떻다 우리의 왕손(王孫)은 가고 안이 오느니.

④ 이화우(梨花雨) 흣ᄲᅮ릴 제 울며 잡고 이별(離別)한 님,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싱각는가.
천 리(千里)에 외로운 ᄭᅮᆷ만 오락가락 ᄒᆞ노매.

**정답 2번**

### 출제 포인트

각 시조의 작가를 확인하고, 작가의 신분·창작 계층이 다른 작품을 찾는 문제이다.

### 핵심 정리

① 황진이: 기녀가 지은 시조이다.
② 윤선도: 사대부가 지은 시조이다.
③ 홍장: 기녀가 지은 시조이다.
④ 계랑(매창): 기녀가 지은 시조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청산은 내 뜻이오 녹수는 님의 정이’는 황진이의 작품으로, 기녀가 창작하였다. 따라서 창작 계층이 가장 다른 작품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②와 달리 ③·④와 같은 기녀 계층의 작품이다.

② O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뫼를 바라보니’는 윤선도의 작품으로, 사대부가 창작하였다. 나머지 세 작품의 작가는 모두 기녀이므로 창작 계층이 가장 다르다.

③ X
‘한송정 달 밝은 밤의 경포대에’는 홍장의 작품으로, 기녀가 창작하였다. 따라서 창작 계층이 가장 다른 작품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①·④와 같은 기녀 계층의 작품이다.

④ X
‘이화우 흩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은 계랑, 곧 매창의 작품으로, 기녀가 창작하였다. 따라서 창작 계층이 가장 다른 작품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①·③과 같은 기녀 계층의 작품이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작품의 주제가 자연 예찬인지 임과의 이별인지에만 주목하면 창작 계층을 놓치기 쉽다. 이 문항은 작품의 분위기가 아니라 작가의 신분을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작품의 첫 구절을 작가와 연결한 뒤 작가의 신분을 분류한다. 황진이·홍장·계랑은 기녀, 윤선도는 사대부이므로 윤선도의 작품을 고른다.

**암기 포인트**

황진이·홍장·계랑은 기녀, 윤선도는 사대부이다.

NoteBase

**문 17. 다음 중 <보기>를 읽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보기>
해안에서 밀물에 의해 해수가 해안선에 제일 높게 들어온 곳과 썰물에 의해 제일 낮게 빠진 곳의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간대라고 한다. 지구상에서 생물이 살기에 열악한 환경 중 한 곳이 바로 이 조간대이다. 이곳의 생물들은 물에 잠겨 있을 때와 공기 중에 노출될 때라는 상반된 환경에 삶을 맞춰야 한다. 또한 갯바위에 부서지는 파도의 파괴력도 견뎌내야 한다. 또한 빗물이라도 고이면 민물이라는 환경에도 적응해야 하며, 강한 햇볕으로 바닷물이 증발하고 난 다음에는 염분으로 범벅된 몸을 추슬러야 한다. 이러한 극단적이고 변화무쌍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생물만이 조간대에서 살 수 있다.
조간대는 높이에 따라 상부, 중부, 하부로 나뉜다. 바다로부터 가장 높은 곳인 상부는 파도가 강해야만 물이 겨우 닿는 곳이다. 그래서 조간대 상부에 사는 생명체는 뜨거운 태양열을 견뎌내야 한다. 중부는 만조 때에는 물에 잠기지만 간조 때에는 공기 중에 노출되는 곳이다. 그런데 물이 빠져 공기 중에 노출되었다 해도 파도에 의해 어느 정도의 수분은 공급된다. 가장 아래에 위치한 하부는 간조시를 제외하고는 항상 물에 잠겨 있다. 땅위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점에선 다소 안정적이긴 해도 파도의 파괴력을 이겨내기 위해 강한 부착력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생존이 쉽지 않은 곳이다.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은 불안정하고 척박한 바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높이에 따라 수직으로 종이 분포한다. 조간대를 찾았을 때 총알고둥류와 따개비들을 발견했다면 그곳이 조간대에서 물이 가장 높이 올라오는 지점인 것이다. 이들은 상당 시간 물 밖에 노출되어도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패각과 덮개판을 꼭 닫은 채 물이 밀려올 때까지 버텨낼 수 있다.

①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이 견뎌야 하는 환경적 조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② 조간대에 따개비가 사는 곳은 어느 지점인가?
③ 조간대에서 높이에 따라 생물의 종이 수직으로 분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④ 조간대의 중부에 사는 생물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각 질문에 필요한 정보가 <보기>에 직접 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각 질문의 핵심어를 찾는다.
2. <보기>에서 같은 대상이나 내용을 설명한 문장을 찾는다.
3. 관련 정보가 직접 제시되지 않은 질문을 고른다.

NoteBase

**핵심 근거**

<보기>에는 조간대 생물이 견뎌야 하는 환경, 따개비가 발견되는 지점, 생물 종이 높이에 따라 분포하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조간대 중부에 사는 생물의 구체적인 종류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선지별 해설**

① O
조간대 생물은 물속과 공기 중의 상반된 환경, 파도의 파괴력, 민물, 강한 햇볕과 증발 뒤의 높은 염분 등을 견뎌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답을 찾을 수 있다.

② O
총알고둥류와 따개비를 발견한 곳이 조간대에서 물이 가장 높이 올라오는 지점이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답을 찾을 수 있다.

③ O
조간대 생물은 불안정하고 척박한 바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높이에 따라 수직으로 종이 분포한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답을 찾을 수 있다.

④ X
<보기>는 중부가 만조 때 물에 잠기고 간조 때 공기 중에 노출되며 파도로 수분을 공급받는다고 설명할 뿐, 중부에 사는 생물의 종류는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질문의 답은 찾을 수 없다.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고치면 '조간대의 중부는 만조와 간조 때 각각 어떤 상태가 되는가?'가 된다.

**오답 포인트**

④의 '중부'라는 말이 지문에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쉽다. 지문에는 중부의 환경적 특징만 있고, 중부에 사는 생물의 종류는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질문의 핵심어가 지문에 등장하는지만 보지 않고, 질문이 요구하는 정보까지 실제로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대상은 나와도 그 대상의 종류·원인·위치 등 요구 정보가 없으면 답을 찾을 수 없다.

**암기 포인트**

핵심어의 등장과 정답 정보의 제시는 다르다.

NoteBase

## 문 18. 다음 <보기>의 작품들을 창작 연대가 앞선 순서대로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보 기 >

㉠ 아아, 날이 저른다. 서편(西便) 하늘에, 외로운 강물 우에, 스러져 가는 분홍빗 놀……. 아아 해가 저물면 해가 저물면, 날마다 살구나무 그늘에 혼자 우는 밤이 또 오것마는, 오늘은 사월(四月)이라 파일날, 큰길을 물밀어 가는 사람 소리는 듯기만 하여도 흥성시러운 거슬 웨 나만 혼자 가슴에 눈물을 참을 수 업는고?

㉡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 창밖을 떠돌던 겨울안개들아 /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 포화(砲火)에 이즈러진 / 도룬 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케 한다 / 길은 한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 일광(日光)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 뿜으며 / 새로 두 시의 급행 열차가 들을 달린다

㉣ "가고 오지 못한다"는 말을 / 철업든 내 귀로 드렸노라 / 만수산(萬壽山)을 나서서 / 옛날에 갈라선 그 내 님도 / 오늘날 뵈올 수 잇엇스면 / 나는 세상 모르고 사랏노라 / 고락(苦樂)에 겨운 입술로는 / 갓튼 말로 조금 더 영리하게 / 말하게도 지금은 되엇건만 / 오히려 세상 모르고 사랏스면!

㉤ 풀이 눕는다 /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 풀은 눕고 / 드디어 울었다 /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 다시 누웠다 // 풀이 눕는다 /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정답 1번**

### 출제 포인트

제시된 시의 구절로 작품과 작가를 식별한 뒤, 각 작품의 창작·발표 시기를 시대순으로 배열하는 문제이다.

### 올바른 순서

㉠ 주요한, 「불놀이」(1919) → ㉣ 김소월,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1925년 시집 『진달래꽃』 수록) → ㉢ 김광균, 「추일서정」(1940) → ㉤ 김수영, 「풀」(1968) → ㉡ 기형도, 「빈집」(1989)이다. 이 순서에서는 1910년대, 1920년대, 1940년대, 1960년대, 1980년대로 작품의 연대가 차례로 늦어진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 ㉠(1919) - ㉣(1925) - ㉢(1940) - ㉤(1968) - ㉡(1989)으로 연대가 앞선 작품부터 정확히 배열하였다.
② X — 틀린 부분은 끝의 '㉡ - ㉤'이다. 「빈집」은 1989년 작품이고 「풀」은 1968년 작품이므로 ㉤이 ㉡보다 앞선다. 올바르게는 '㉠ - ㉣ - ㉢ - ㉤ - ㉡'이다.
③ X — 틀린 부분은 '㉣ - ㉢ - ㉠'이다. 1919년의 「불놀이」가 1925년의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와 1940년의 「추일서정」보다 앞선다. 올바르게는 '㉠ - ㉣ - ㉢ - ㉤ - ㉡'이다.
④ X — 틀린 부분은 첫머리의 '㉣ - ㉠'이다. 「불놀이」는 1919년,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는 1925년 작품이므로 ㉠이 ㉣보다 앞선다. 올바르게는 '㉠ - ㉣ - ㉢ - ㉤ - ㉡'이다.

### 오답 포인트

②는 가장 최근 작품인 기형도의 「빈집」과 김수영의 「풀」의 선후를 바꾸었고, ③·④는 초기 자유시인 주요한의 「불놀이」를 김소월 작품보다 뒤에 놓았다. 「불놀이」가 1919년 작품이라는 점과 「빈집」이 다섯 작품 중 가장 늦다는 점이 핵심 경계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구절의 대표 표지를 이용해 작품을 식별한다. '사월이라 파일날'은 「불놀이」,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는 「추일서정」, '풀이 눕는다'는 「풀」,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는 「빈집」이다. 작품명을 확정한 뒤 1919 → 1925 → 1940 → 1968 → 1989의 순서로 배열한다.

### 암기 포인트

불놀이(1919) → 세상 모르고(1925) → 추일서정(1940) → 풀(1968) → 빈집(1989)이다.

NoteBase

**문 19. 위 글에서 ㉠~㉤를 논지 전개에 맞추어 가장 바르게 배열한 것은?**

<보기>
㉠ 오늘날, 우리는 민족 문화의 전통을 연암에게서 찾으려고는 할지언정, 고문파에서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민족 문화의 전통에 관한 해명의 열쇠를 제시하여 주는 것이 아닐까?

전통은 물론 과거로부터 이어 온 것을 말한다. 이 전통은 대체로 그 사회 및 그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전통은 우리의 현실에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이어 온 것을 무턱대고 모두 전통이라고 한다면, 인습이라는 것과의 구별이 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습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계승해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에서 이어 온 것을 객관화하고,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 서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 비판을 통해서 현재의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이같이, 전통은 인습과 구별될뿐더러, 또 단순한 유물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현재에 있어서의 문화 창조와 관계가 없는 것을 우리는 문화적 전통이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 한편, 우리가 계승해야 할 민족 문화의 전통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연암의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과거의 인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의 결정이었다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사실이다.

㉢ 피와 뼈와 살을 조상에게서 물려받았을 뿐, 문화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서양에서 받아 들인 것들인 듯싶다. 이러한 현실을 앞에 놓고서 민족 문화의 전통을 찾고 이를 계승하자고 한다면, 이것은 편협한 배타주의나 국수주의로 오인되기에 알맞은 이야기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민족 문화의 전통을 말하는 것은 반드시 보수적이라는 멍에를 메어야만 하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전통이란 어떤 것이며, 또 그것은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요컨대, 우리 민족 문화의 전통은 부단한 창조 활동 속에서 이어 온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계승해야 할 민족 문화의 전통은 형상화된 물건에서 받는 것도 있지만, 한편 창조적 정신 그 자체에도 있는 것이다.

㉤ 원효는 당시의 유행인 서학을 하지 않았다. 원효의 '화엄경소'가 중국 화엄종의 제3조 현수가 지은 '화엄경탐현기'의 본이 되었다. 원효는 여러 종파의 분립이라는 불교계의 인습에 항거하고, 여러 종파의 교리를 통일하여 해동종을 열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승려들이 귀족 중심의 불교로 만족할 때에, 스스로 마을과 마을을 돌아다니며 배움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를 꺼리지 않은, 민중 불교의 창시자였다. 이러한 원효의 정신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귀중한 재산이 아닐까?

㉥ 이러한 의미에서, 민족 문화의 전통을 무시한다는 것은 지나친 자기 학대에서 나오는 편견에 지나지 않을

NoteBase

것이다. 따라서, 첫머리에서 제기한 것과 같이, 민족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자는 것이 국수주의나 배타주의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왕성한 창조적 정신은 선진 문화 섭취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새로운 민족 문화의 창조가 단순히 과거의 묵수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또 단순한 외래 문화의 모방도 아닐 것임은 스스로 명백한 일이다. 외래 문화도 새로운 문화의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뜻이 있는 것이고, 그러함으로써 비로소 민족 문화의 전통을 더욱 빛낼 수가 있는 것이다.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문제 제기, 개념 규정, 논지의 확장, 사례 제시, 결론의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 → ㉠ → ㉡ → ㉤ → ㉣
㉢은 서양 문화의 영향 속에서 민족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자는 주장이 국수주의로 오인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어지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은 전통을 인습·유물과 구별하고, 현재의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기준을 세운다. ㉡은 '한편'으로 논의를 확장하여 계승할 전통이 과거의 인습을 깨고 새것을 창조한 노력의 결과임을 밝힌다. ㉤은 원효가 종파의 분립과 귀족 중심 불교를 넘어선 사례로 그 창조적 정신을 구체화한다. ㉣은 '요컨대'로 앞의 논의를 종합하여 민족 문화의 전통이 부단한 창조 활동과 창조적 정신에 있음을 결론짓는다.
이 순서가 되는 까닭은 전통의 기준을 먼저 세워야 원효의 행적이 계승할 전통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고, 구체적 사례를 든 뒤에야 '요컨대'로 일반적 결론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 ㉠보다 ㉢의 문제 제기가 먼저 나와야 하며, ㉣은 ㉤의 사례를 종합하는 결론이므로 ㉤보다 앞설 수 없다. 올바르게는 ㉢ → ㉠ → ㉡ → ㉤ → ㉣이다.
② O — ㉢의 문제 제기에서 출발해 ㉠의 전통 개념 규정, ㉡의 창조적 전통이라는 논지 확장, ㉤의 원효 사례, ㉣의 종합적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③ X — ㉢의 문제 제기가 ㉠의 개념 규정보다 뒤에 놓였고, 사례인 ㉤이 종합 결론인 ㉣ 뒤에 놓였다. 올바르게는 ㉢ → ㉠ → ㉡ → ㉤ → ㉣이다.
④ X — ㉡의 '한편'은 ㉠에서 세운 전통의 기준을 받아 논의를 확장하므로 ㉠보다 먼저 올 수 없다. 올바르게는 ㉢ → ㉠ → ㉡ → ㉤ → ㉣이다.

### 오답 포인트

㉠ 첫 문장의 '연암'과 ㉡의 '연암의 예'만 보고 두 문단의 선후를 정하면 혼동하기 쉽다. 핵심은 ㉢이 전체 문제를 제기하고, ㉠이 판단 기준을 마련하며, ㉤의 구체적 사례 뒤에 ㉣의 '요컨대'가 결론으로 온다는 점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배열 문제에서는 지시어와 접속어의 기능을 먼저 확인한다. 의문을 제기하는 도입 뒤에 개념 규정이 오고, '한편'은 앞 논의를 확장하며, 구체적 사례 뒤의 '요컨대'는 전체 내용을 종합한다.

### 암기 포인트

문제 제기 → 기준 설정 → 논지 확장 → 사례 → 요약·결론의 흐름이다.

NoteBase

**문 20. 위 글에 나타난 필자의 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오늘날, 우리는 민족 문화의 전통을 연암에게서 찾으려고는 할지언정, 고문파에서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민족 문화의 전통에 관한 해명의 열쇠를 제시하여 주는 것이 아닐까?

전통은 물론 과거로부터 이어 온 것을 말한다. 이 전통은 대체로 그 사회 및 그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전통은 우리의 현실에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이어 온 것을 무턱대고 모두 전통이라고 한다면, 인습이라는 것과의 구별이 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습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계승해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에서 이어 온 것을 객관화하고,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 서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 비판을 통해서 현재의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이같이, 전통은 인습과 구별될뿐더러, 또 단순한 유물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현재에 있어서의 문화 창조와 관계가 없는 것을 우리는 문화적 전통이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 한편, 우리가 계승해야 할 민족 문화의 전통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연암의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과거의 인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의 결정이었다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사실이다.

㉢ 피와 뼈와 살을 조상에게서 물려받았을 뿐, 문화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서양에서 받아들인 것들인 듯싶다. 이러한 현실을 앞에 놓고서 민족 문화의 전통을 찾고 이를 계승하자고 한다면, 이것은 편협한 배타주의나 국수주의로 오인되기에 알맞은 이야기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민족 문화의 전통을 말하는 것은 반드시 보수적이라는 멍에를 메어야만 하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전통이란 어떤 것이며, 또 그것은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요컨대, 우리 민족 문화의 전통은 부단한 창조 활동 속에서 이어 온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계승해야 할 민족 문화의 전통은 형상화된 물건에서 받는 것도 있지만, 한편 창조적 정신 그 자체에도 있는 것이다.

㉤ 원효는 당시의 유행인 서학을 하지 않았다. 원효의 '화엄경소'가 중국 화엄종의 제3조 현수가 지은 '화엄경탐현기'의 본이 되었다. 원효는 여러 종파의 분립이라는 불교계의 인습에 항거하고, 여러 종파의 교리를 통일하여 해동종을 열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승려들이 귀족 중심의 불교로 만족할 때에, 스스로 마을과 마을을 돌아다니며 배움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를 꺼리지 않은, 민중 불교의 창시자였다. 이러한 원효의 정신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귀중한 재산이 아닐까?

㉥ 이러한 의미에서, 민족 문화의 전통을 무시한다는 것은 지나친 자기 학대에서 나오는 편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첫머리에서 제기한 것과 같이, 민족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자는 것이 국수주의나 배타주의가 될

NoteBase

수는 없다. 오히려, 왕성한 창조적 정신은 선진 문화 섭취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새로운 민족 문화의 창조가 단순히 과거의 묵수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또 단순한 외래 문화의 모방도 아닐 것임은 스스로 명백한 일이다. 외래 문화도 새로운 문화의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뜻이 있는 것이고, 그러함으로써 비로소 민족 문화의 전통을 더욱 빛낼 수가 있는 것이다.

① 새로운 민족 문화 창조에 도움이 된다면 외래 문화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② 거의 모든 문화가 서구화된 현실 속에서 전통 문제를 철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③ 민족 주체성을 지키기 위해 국수주의나 배타주의적 태도가 필요할 때도 있다.
④ 과거의 인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전통을 이어받아야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필자가 전통의 비판적 계승과 외래 문화의 주체적 수용을 함께 주장한다는 점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필자가 말하는 전통은 과거에서 이어 온 것 가운데 현재의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습을 그대로 지키는 태도나 외래 문화를 배척하는 태도가 아니라, 과거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외래 문화도 새로운 민족 문화의 창조에 도움이 되도록 수용하는 태도가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필자는 외래 문화도 새로운 문화의 창조에 이바지할 때 의미가 있으며, 왕성한 창조적 정신은 선진 문화의 섭취에 인색하지 않다고 본다.
② O — 필자는 문화의 많은 부분을 서양에서 받아들인 현실을 제시한 뒤, 전통의 본질과 계승 방식을 살펴보아야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국수주의나 배타주의적 태도가 필요할 때도 있다'이다. 필자는 민족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 국수주의나 배타주의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올바르게는 민족 문화의 주체성을 지키되 외래 문화를 배척하지 않고, 새로운 문화 창조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④ O — 필자는 계승할 전통이 과거의 인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며, 전통의 핵심에는 창조적 정신이 있다고 본다.

**오답 포인트**

③은 '민족 문화의 전통 계승'을 '외래 문화를 배척하는 국수주의'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글은 전통의 계승과 외래 문화의 수용을 대립시키지 않고, 둘 다 새로운 민족 문화 창조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필자의 태도를 묻는 문제에서는 결론 부분의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각 선지를 대조한다. 이 글에서는 '인습 타파', '창조적 계승', '외래 문화의 주체적 수용'은 부합하고, '국수주의·배타주의'는 정반대이다.

**암기 포인트**

전통은 과거의 묵수가 아니라 창조적 계승이며, 외래 문화는 배척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수용한다.

NoteBase